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11월 28일(일) 총 3매	환경특별시 인천			
담당부서	에너지정책과	담당자	• 자원산업팀장 손철호 ☎440-4341 • 담당자 박나혜 ☎440-4343			
사진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	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중구 신흥동 ‘인천그린수소충전소’ 운영 개시
-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위해 2025년까지 20개소로 확충할 것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‘인천그린수소충전소’가 11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.

현재 영업 중인 ‘H인천수소충전소’ 및 ‘인천국제공항공사 T1, T2’에 이어 이번 ‘인천그린수소충전소’를 포함하면 인천에는 4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된다.

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‘인천그린수소충전소’는 29일부터 상시 이용가능하며, 승용차의 경우 하루에 최대 135대, 버스의 경우 하루에 최대 23대를 충전할 수 있다. 2021년 11월 기준 충전요금은 kg당 8,800원이다.

이 수소충전소는 외부로부터 수소를 공급하는 튜브 트레일러 방식으로 구축됐으며 향후 동일 부지 내에 수소를 직접 추출하는 소규모 수

소생산기지도 구축할 예정이다.

이외에도 인천시에서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서구 가좌동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면 금년 총 5개의 수소충전소가 운영될 예정이다.

2021년 10월 기준으로 인천시 관내 보급된 수소차량은 총 836대로서 연수구 182대, 남동구 175대, 계양구 128대, 서구 104대 등이다. 인천시는 지속적인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소충전소를 2025년까지 2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.

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“승용차와 더불어 대중교통, 화물차 등 상용차의 수소연료 전환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며 “수소차량을 소유하신 시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해드리고 수소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지역 20분내 접근 가능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앞당겨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
